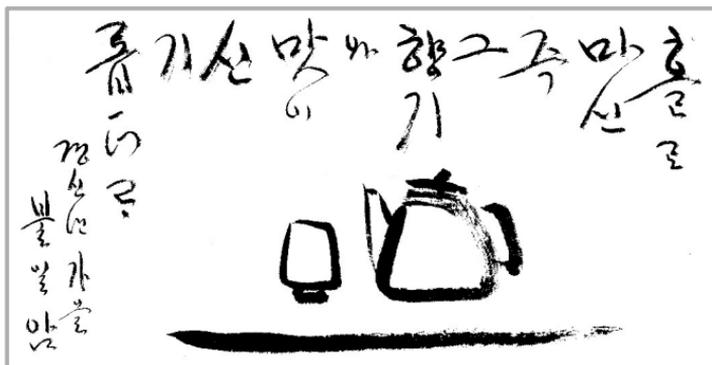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신임 이사장 덕현스님, 광주 지역 순회법회”

10.22(금) 맑고 향기롭게 광주 사무실(법당)



광주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이 지난 9월 보성 대원사 광주 포교당 지장왕사가 있는 구화산빌리지로 이전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2일(금) 광주사무실 이전과 법정스님 기념관 개원식을 겸한 이사장 덕현스님의 법회가 있으니 지역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부 : 오후 3시 30분~7시

광주모임 사무실 이전 및 법정스님 기념관 개원식 /
지역 내 불우이웃 200여 명 초청행사(공연, 식사, 선물증정 등)

◆ 2부 : 오후 7시~9시

이사장 덕현스님 지역순회법회

- 문의 : (062)236-3129 / 광주시 북구 중흥동 656-11 구화산빌리지 2층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0 / 10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	4	마음이 가난해야
이달의 법문 / 덕현	6	염공문(念弓門)의 수행자
생명칼럼 / 우희중	10	생명현상으로서의 정신과 마음
산골만화 / 정태경	13	한가득 푸짐한...
채식으로 세상보기 / 이성학	14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생태 돋보기 / 최원형	16	상수리나무 아래서
맑고의 나눔현장 / 정애리	21	사랑과 희망의 반찬, 많이많이 드세요!
길상사 생태활동 / 회월	25	길상사 경내가 새롭게 보였어요
봉사하는 사람들 / 도안	27	합창단의 '나누는 기쁨'
수행하는 사람들 / 아 운	28	아침 참선 수행기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듬	31	9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38	서울모임
	43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45	10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188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어윤현 / 편집장 이성학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천 / 인쇄처 계명문화사 / 부산모임:(051)898-2672~3 / 대전모임:(042)823-0770 / 경남모임:(055)266-0170 / 광주모임:(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wlotus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마음이 가난해야

「물소리 바람소리」 중에서

法頂 (스님)

간밤 꿈에는 하늘 가득 영롱하게 빛나는 별과 은하수를 보았다. 기분 좋은 꿈은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가는 기쁨이 될 수 있다. 날마다 흐리고 지척지척 비만 내리는 장마철이라 어찌다 펼쳐지는 한 줄기 햇살에도, 혹은 후박나무 잎 새로 살랑거리며 지나가는 맑은 바람결에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항상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존재의 고마움을 잊고 지내다가도, 한동안 뜬하여 대할 수 없게 되면 새삼스레 그 은혜와 고마움을 실감한다. 밤하늘의 별과 달, 어둔 숲속에서 여기저기 어지럽게 날고 있는 반딧불을 대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든다. 의기가 서로 통하는 친구

사이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무심히 피고 지는 꽃과 가지 끝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바위 틈으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혹은 귀에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생명들이 한데 어울려 우주적인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존재와 조화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만 찾아낼 수 있다. 한 생명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지체라는 대등한 입장에서 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보려거나 인간 우위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눈을 뜨고도 볼 수가 없다. 현대

의 맹목(盲目)은 바로 이 자기 중심 내지는 인간 중심의 오만에 그 까닭이 있을 것 같다.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저쪽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서 아무 상관도 없는 구경거리 같지만, 보다 맑은 눈으로 보면 몇 다리를 거쳐 곧 우리에게 이어진 일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질구레한 연유들은 그만두고라도 같은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무연한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지어진 필요조건들인 것. 개인이나 국가를 물을 것 없이 함께 잘살려고 해야지 한 쪽만 잘살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잘살 수 없다. 잘사는 데는 물질적인 충족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족도 문제 삼아야 한다.

한걸음 나아가 뵈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다 값있게 살 줄을 알아야 한다. 가치

부여를 할 수 없는 삶은 단지 생존일 뿐. 생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생활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차지하고 평평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값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가진 것은 적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당당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

저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오늘 같은 물질만능의 세태에서는, 차라리 가난의 덕을 배우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 아닐까 싶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온갖 갈등과 모순에서 깨어날 수 있을 테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거기 우주의 메아리가 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야 비로소 삶의 무게를 헤아릴 수 있다. 

... (중략) ...



염궁문(念弓門)의 수행자

德賢 (이사장)

가을, 인스부르크,

알프스 기슭 산길에서 활을 맨 시골 노인을 만났다. 매우 서투른 영어로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 코리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한국이 넘버원(number one)이라고요? 얼른 이해할 수 없다. 활을 가리키며 사냥하러 가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신다. 같이 가자고요? 스님인데요, 못 가요. 그래도 가자고 한다. 부디스트 명크(Buddhist monk, 불교 수행자)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아요. 더 알아듣지 못하신다.

그때 현지인 할머니가 왔다. 통역으로 언어의 장벽을 낮춰 준다. 그 할아버지는 사냥꾼이 아니라 활터에 같이 활 쏘러 가자는 뜻이었다고 한다. 오해가 풀리자 할아버지는 조르고 졸라서 기어이 활터로 가는 길에 머나먼 동방, 코리아에서 온 스님 셋을 앞세운다.

양궁장은 산모퉁이를 돌아서 아름답고 아늑한 숲속에 마치 시간 밖에 놓인 듯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 근사했다. 할아버지는 형태와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활을 보여주며 우리 보고 하나씩 골라잡으라는 몸짓을 했다. 같이 간 두 스님은 한사코 사양하셨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남은 나에게 기어이 활을 하나 들려주었다. 왜 이러실까? 문득 코리아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올림픽에서마다 양궁의 절대 강국이었던 코리아. 아, 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온 이 특이한 복색을 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활쏘기의 달인들이라고 단정하셨나 보다.

난감했다. 우린 활을 한 번도 쏘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요. 또 안 믿으신다. 결국 활을 쏘는 자리로 끌려갔다. 가르쳐주시면 쏘아 볼게요. 할아버지는 발을 딛고 자세 잡

는 법, 활 위에 화살을 걸치는 지점, 화살을 시위에 걸어 잡고 격발시키는 요령, 활을 기울이는 각도 등을 건성으로 알려준다. 쏘아보라고요?

과녁을 보았다. 언젠가 TV에서 활 쏘는 풍경을 보았던 기억이 났다. 그때 화면은 화살이 생각처럼 곧게 날아가지 않고 멀리 던진 돌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맞아, 화살은 곡선을 그린다. 그렇다면 과녁 보다 위쪽을 겨냥하고 쏘아야겠구나. 시위를 당겨 보았다. 활은 몹시 억세었다. 잠시 쉬었다가 숨을 조용히 크게 들이켜며 최대한 완력을 쓰지 않고 전신으로 부드럽게 당긴다. 왜? 몰라. 대개 모든 앞운동이나, 일이 거의 다 그렇잖아? 과녁을 바라보며 숨을 멈춘다. 욕심을 버린다. 마음을 신다. 자, 썩. 그런데 과녁보다 얼마쯤 위를 겨냥하지? 모르겠다. 대충 저기쯤. 화살을 놓았다.



어이쿠! 화살은 과녁의 중심도 주변도 맞추지 못하고 벽에 맞은 것도 아니고 아예 기다란 나무판자를 세워 만든 펜스를 넘어 알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흠련이다, 흠

련. 시위를 걸어 당기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마지막 마디만 온통 감각이 없어질 만큼 얼얼했다. 거 보세요. 평범한 코리언은 전혀 활 못 쏜다니까요.

할아버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니 몸소 활에 화살을 재고 과녁을 겨냥한다. 한 발, 두 발, 세 발. 삼분의 이는 중앙에 명중이다. 나를 돌아보며 다시 해 보라는 표정이다. 또 배달민족의 자존심을 자극하신다. 나는 다시 활을 들었다.

좋다. 나는 주몽이다. 당태종의 눈꼴에 화살을 꽂아 버린 양만춘이다. 화살을 날리기 전에 눈빛으로 과녁의 복판을 꿰뚫어 주지. 정면 승부. 나는 과녁의 중심을 노려보았다. 화살이 날아갔다. 노인이 눈

나는 염궁문(念弓門)의 수행자,

화살을 놓기 전에 나를 먼저 놓아야 한다.

쏘되 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는다.

을 크게 떴다. 활은 충분히 강했다. 이 거리 정도는 화살이 아주 곧게 직진했다. 노인은 이내 활터에서 아마도 제일 강한 축에 들 옛날 활을 다시 들고 왔다. 과녁에서 더 멀리 떨어졌다. 그러나 차이는 없었다.

이번에는 산 위쪽을 가리켰다. 과녁 대신 동물 모형이었다. 아무리 모형이라도 부디스트 멍크가 저 동물 형상을 싸요? 뭐가 대수냐는 듯이 노인이 먼저 화살을 날렸다. 역시 삼분의 이가 적중했다. 오, 빌헬름 텔(Wilhelm Tell)? 다시 쏘도록 멍크를 다그친다.

좋다. 그럼 나는 염궁문(念弓門)의 수행자, 천상천하에 위없는 명궁 불타 석가모니의 수제자 사리불이다. 화살을 놓기 전에 나를 먼저 놓아야 한다. 쏘되 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는다. 두 발을

쏘았다. 둘 다 적중하고 그중 한 발은 모형의 존재하지 않는 심장을 뚫었다.

다음 날 다시 만난 할머니는 활을 처음 잡아 본 전설의 명궁 코리언의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다고 전했다.

어느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뛰어난 궁수였다. 그 생에도 석존의 제자가 되었던 사리불이 어느 날 활쏘기를 배우러 왔다. 부처님은 화살을 시위에 쏘 다음 활을 당겨 과녁을 조준하되 정작 화살을 날리지는 못하게 했다. 한 점을 향해 시위를 당겼다 그대로 활을 내리는 연습만을 끝없이 되풀이하라는 것이었다. 사리불은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동작을 몇 년이나 하염없이 반복했고 그 사이에 화살은 한 발도 쏘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도 세세생생 부처님만 졸졸 따라다닌 이 제자는 끝내 떠나가지 않았다. 6년 뒤 부처님은 문득 사리불에게 과녁을 향해 화살을 날리라고 명하였다. 화살은 백발백중,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어느새 제자는 스승과 조금도 다름없는 천하의 명궁이 되어 있었다.

경전은 석가족들이 궁술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다고 보고한다. 무예를 아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창을 잘 다루고 일본인들이 칼을 잘 다룬다면, 원래는 심성이 고요하고 깊었던 이 배달의 사람들 또한 활을 잘 다루었다고 말한다.

마조가 어느 날 숲에서 활을 든 사냥꾼을 만나 물었다. 활을 한 번 쏘아 몇 마리를 잡는가? 한 번에 한 마리씩 잡습니다. 스님도 활을 쏘십니까? 쏘다. 스님은 한 번에 몇 마리를 잡으십니까?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다. 자비하신 스님께서 어찌 화살 하나로 여러 목숨을 해치십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왜 그대 자신을 쏘지 않는가? 사냥꾼은 즉시 활을 내던지고 중이 되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회원만남

10월 15일(금)
오후 2시. 설법전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노력으로 매월 회원만남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맑고 향기롭게 서울지역 본부장인 윤청광 이사의 특별강연이 있습니다.

윤청광 이사는 방송 작가로 「고승열전」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장, 법보신문 논설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귀한 인연 되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생명현상으로서의 정신과 마음

우 희 종

법명 여산,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송광사 현전스님의 유발상좌로 '무'자 화두로 간화선 수행을 했다. 정부의 쇠고기수입정책을 비판하며 「생명과학과 선」 등의 저서가 있다. -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일컬어진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육체와 정신 중에 정신은 육체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고, 정신노동은 육체노동보다 우위에 있어서 형이상학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정신이 강조된 서양 근대문화에서도 육체가 조금이나마 대접받기 시작한 것은 니체나 메를로 폰티¹⁾와 같은 철학자들의 입장이 반영되면서부터일 것이다.

정신작용의 대표적 사례로서 자의식이 있다. 자의식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상(我相)에 가깝고, 자의식은 아상이라는 형태로서 자신의 삶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친다. 이

처럼 자의식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생각하면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고 정신의 위대성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리 잘못된 것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자의식에 근거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문학과 예술의 근간이 되며,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며 세상을 인식하는 바탕을 이룬다.

그런데 부처님은 생명체를 설명할 때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오온(五蘊)으로 이야기한다. 지수화풍(地水火風)이라는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색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작용을 언급한다. 따라서 굳이 '안

1) 메를로 폰티(Merleau-Ponty, 1908~1961) 프랑스 현상주의 철학자

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와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십이처설(十二處說)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은 육체와 정신을 대등하

정신이 육체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에 의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은 부지불식간에 정신이 육체보다 우월하다는 시각을 지닌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시한다.

게 놓았던 것이다. 정신 작용이 육체를 바탕으로 나타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정신 작용은 몸에 종속된 것임을 말해 준다. 정신이 육체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에 의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은 부지불식간에 정신이 육체보다 우월하다는 시각을 지닌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시한다.

정신상태가 이상하지 않는 한 아무도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날개가 없기 때문이다. 또 깊은 바다를 거닐 수도 없다.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없고 깊은 물속을 거닐지 못하는 것은 날개와 아가미라는 육체

구성물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날지 못하고 깊은 물속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의식은 자신의 육체가 지닌 한계에 의해 제한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어려서 기저귀 차고 기어 다니던 시절, 고층 아파트 베란다와 같이 높은 곳에 기어 나가

떨어지고 깊은 물에 겁 없이 들어가 빠진 경험을 통해 스스로 날지 못하고 깊은 물에 못 들어간다는 자의식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본다면 부모로부터 육체를 받기 전,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나라는 존재는 하늘을 날고 깊은 물속을 거니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몸을 받아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육체의 한계와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우리는 육체에 길들여진 정신을 지니게 될수록 철이 들었다고 하며 축하해 주는 전도몽상(顛倒夢想)된 시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부처님 말씀과 같이

자의식이란 육체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몸의 팔다리처럼 정신도 육체의 또 다른 일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이란 물질화되지 않은 육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가 나이를 먹듯이 정신도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나이를 먹어 깊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를 축하해 줄 일로 말하며, 결국 육체와 정신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 시간 속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육체에 종속된 정신과는 달리 육체와 대응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있다. 몇 십 년 만에 만난 어릴 때 친구와는 시간의 흐름도 잊고 곧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웃고 떠든다. 육체나 정신과는 달리 마음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선적 시간이 사라진다. 전도몽상이 없어 철없고, 높고 낮음이나 자타의 분별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전도몽상된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육체에 의존해 있지 않은 부모미생

전의 마음, 이것을 찾기 위한 마음 공부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인생,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느끼면서 살아가자. 

10월

주말 선수련회 안내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해 한 달에 두 번 신참반과 구참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불교를 갖 접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신참반에, 수련경험이 있거나 참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구참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가 함께 열어나가는 뜻 깊은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길상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참반 :

매월 셋째 주말(10월 16~17일)

■ 구참반 :

매월 넷째 주말(10월 23~24일)



한가득 푸짐한...

정 태 경



집 앞마당에 커다란
뽕나무가 있다.

손을 떼어가면서
오디로 겹을 만들고



이웃들에게
선물을 했다.



돌아온 것은
한가득 푸짐한
인심이였다.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이 성 학 (기획실장)

누군가 내게 “당신은 왜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명을 지르고 죽어간 동물의 고기는 맑고 향기로운 음식이 아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이 어떻게 왔는가?

채식을 한 후 음식을 앞에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 들곤 했다. 특히 고기를 볼 때는 도살된 장면이 생각났고 눈물과 원망 속에 죽어 간 동물의 심정이 헤아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이라면 우선 영양 불균형을 우려한다. 풀만 먹고 어떻게 힘을 쓰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채식을 식품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해

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채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아직까지는 소수인 듯하다. 필자는 이것을 지나치게 분석적인 현대 영양학의 병폐라고 생각한다. 이론은 그럴 듯해도 실제로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채식만으로 충분함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며 영양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

채식을 사상·철학·종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곧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너(동물)의 목숨을 빼앗는단 말인가.” 단지 강자라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서? 너의 하찮은(?) 생명보다는 나의 입맛이 더 소중해서?

생존을 위해 주위에 너 밖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먹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내 업이 될 수밖에 없다.

몇 천년, 몇 백년 전에도 이런 문제로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은 많았다. 고대의 붓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성 프란체스코를 비롯하여 근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 뉴턴, 볼테르, 소로우, 톨스토이, 슈바이처, 간디 등이 사상적인 고민 끝에 채식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저작을 읽어보면 매우 치열한 고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확고한 소신과 주관으로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육식과 채식이 영양학적인 문제와 사상적인 문제로 충돌했을 때 과감히 채식을 따른 사람으로는 간디를 들 수 있다. 그는 생명사상에 근거하여 고기를 일절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 살 먹은 어린아들이 고열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결코 먹이지 않았다. 아들의 나이가 어려 우유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하다며 달걀과 치킨수프를 먹여야 한다는 의사에 말에 간디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사람의 신앙은 이와 같은 때 시험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잘못된 인간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앙의 규범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때에도 고기를 먹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수밖에 없습니다.” (간디 자서전 제3부 신앙의 시련)

필자는 특히 종교적으로 기도와 수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채식은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생은 죄업의 결과로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의 실현이 인간보다 다소 늦은, 그래서 더욱더 연민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함이 차별 없는 무분별의 지혜를 갖추는 데 있는 이상, 윤회 업보를 이유로 축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상수리나무 아래서

최 원 형

법명 심지명, 길상사 도서관 봉사팀장, EBS와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했고, 「도시에서 생태감수성 키우기」(랜덤하우스코리아)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 편집자 주

일주문을 들어서기 전 왼편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흔히들 참나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상수리나무’입니다. 구월 초순까지 상수리나무 밑에는 가지들이 떨어져 어지럽게 널려 있곤 했습니다. 거위벌레가 그 아수라장을 만든 장본인인데요, 도토리 안에다 알을 낳고는 상수리나무 잎사귀 몇 개를 붙여 가지를 잘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도토리가 제법 자랐다면 거위벌레는 톱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잎사귀를 몇 개 붙이는 이유는 낙하할 때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배려에서입니다. 그래야 도토리 안에 들어있는 알이 충격을 받지 않고 무사할 테니까요. 나뭇가지에 그대로 두지 않고 알이 들어있는 도토리를 굳이 아래로 떨어뜨리는 까닭은, 알이 애벌레로 부화했을 때 땅



으로 기어 들어가 월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산에서일 겁니다. 종족번식을 위한 거위벌레의 노동은 가히 놀랄만합니다. 날마다 거위벌레가 잘라 낸 나뭇가지들로 나무 주변은 빗자루질을 하지 않고선 못베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상수리나무에는 거위벌레만 살까요?

상수리나무 우듬지(나무의 꼭대기 줄기)로 새들이 날아오고 날아갑니다. 박새도 보이고 직박구리도 보입니다. 터러 까마귀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 나무 위에

앉아 잠시 매력적인 소리를 토해내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새들이 우듬지를 찾아 날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새들이 상수리나무를 찾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쉬러 들르기도 할 테죠. 혹은 나무에 있는 벌레를 먹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다람쥐가 오르내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람쥐는 상수리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동물이죠. 상수리나무가 이곳저곳으로 자손을 퍼뜨리는 데 중요한 운반자니까요. 다람쥐가 그런 배달

부 역할을 할 생각이 있던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저 춥고 삭막한 겨울식량 확보를 위해 도토리를 여기저기에 묻어 두곤 그 장소를 까먹다 보니 뜻하지 않게 도토리를 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름 내내 맴맴 울던 매미도 상수리나무 즙을 먹으러 나무줄기 어딘가에 머물다 갔을 겁니다. 상수리나무에 꽃이 피던 봄에는 꽃가루를 수집하러 벌들도 많이 왔을 테고요.

줄기를 한 번 볼까요? 줄기의 껍질을 슬쩍 들춰볼 수 있다면 겉껍질과 줄기 사이에 벌레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나무라면 십중팔구 벌레들이 있죠. 뿌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흙이 있습니다. 흙에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개미와 지렁이군요. 툭토기나 공벌레, 굼벵이 등도 있을 겁니다. 땅속 뿌리에서부터 저 하늘 높이 솟은 우듬지까지 상수리나무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위치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수리나무는 여러 동물들이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인 셈이지요.

상수리나무 한 그루 안에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영역을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한 공간에 어울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동물들은 각자 인식하는 공간간의 세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의 삶에서 공간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동물들이 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분이 다가올 무렵이면 꽃무릇이 길상 트락을 붉게 물들입니다. 화려한 꽃무릇의 자태에 빠져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호랑나비 한 마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호랑나비가 꽃무릇의 화려함을 즐기러 왔을까요? 호랑나비는 한 꽃에 잠시도 가만 앉아 있질 못하고 이 꽃 저 꽃으로 옮겨 다니며 팔랑거리는데 정신이 어질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꿀을 찾아 온 게 아닌가 싶는데 만족스런 꿀이 없었던 건지, 아님 그 짧은 시간에 꿀을 만 것인지 한 꽃에 앉는가 싶으면 이내 다른 꽃으로 옮겨 다니길 반복



하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꽃무릇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던 저는 꽃무릇 생김새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호랑나비는 꽃의 생김새와는 별개로 꿀주머니로 꽃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호랑나비와 저는 짧은 시간 동안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서로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호랑나비가 꽃을 바라보는 방식이 틀렸다면 제가 꽃을 바라보는 방식이 틀렸다 할 어떤 근거도 없는 거지요.

거미는 또 어떤가요? 거미가 줄

을 치고 느긋하게 먹잇감을 기다리는 장면은 마치 수도승의 모습 같습니다. ‘먹이가 걸려들지 않으면 어찌지’ 하는 조바심이란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 거미의 줄을 건드려 망가뜨리면 거미는 좀 전과는 달리 곧장 수리에 들어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 거미줄에 달렸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거미가 인식하는 세상은 오직 그 거미줄 위에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거추장스런 거미줄이 거미에게는 일생일대가 달린 문제니까 대상에 따라 인식은 참 다릅니다. 길상의 이곳

저곳을 걷다가 거미줄을 만나더라도 행여나 줄을 거뒀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군요.

문득 오스카 와일드의 이기적인 거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꽃대궐의 정원을 가진 거인은 아이들이 들어와 노는 것이 너무 성가셔서 어느 날 정원 주변에 담을 둘러칩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자 정원은 을씨년스런 겨울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합니다. 견디다 못한 거인이 담장을 허물고 아이들이 다시 정원에 찾아들자 화창한 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이 이기적인 거인의 그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인식의 세계에서 내 인식만이 세상의 잣대인 양 휘둘러 대는 이기심이 결국은 어떤 생명도 꽃피울 수 없는 동토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함께 사는 이 터전을 함부로 허무는 일은 그래서 무척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

다. 오जे 가운데 하나인 ‘불살생’. 하지만 살아 있는 생물을 죽였을 때만 살생이라 규정될 수는 없을 겁니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절박한 터전을 허무는 일은 곧 살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인식했을 때 내게 필요 없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이 어떤 생물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와 다른 존재가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에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세상에는 평화로운 공존이 비로소 가능한 게 아닐까요. 이러저러한 생물들과 함께 삶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 상수리나무 한 그루에서 얻은 생각입니다. (2010.9.23) 





사랑과 희망의 반찬, 많이많이 드세요!

- 결식이웃 밀반찬팀

정 애 리 (밀반찬팀 봉사자)



“고구마순 껍질을 언제 다 까고 있어? 그냥 합시다. 내가 음식점에서 먹어 봤는데 껍질 안 까도 먹기 괜찮더라고요.”

“짧으니까 그렇지! 어르신들 드실 거니까 껍질을 까는 게 좋아. 여기 사람이 몇인데 금방 까지.”

“다음 주 반찬 콩조림 할 때는 콩을 하루 전에 불려야지?”

“안 돼요, 그럼 맛있어요. 불리지 말고 멸치 다시마 육수에 간장 넣고 바로 콩 넣어 조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맛이야 낫겠지만 어르신들이 드시기엔 아무래도 딱딱

할 거야.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루 전에 불러야 해, 그게 낫지.”

“그럼 누가 수요일 오후에 콩을 씻어서 체에 밭쳐 놓으면 좋겠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이면 길상사 주차장 위에 있는 맑고 조리장은 아침 일찍부터 시끌벅적하다.

무를 너무 크게 썰었다고 한쪽에서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래야 먹음직스럽다고 반박을 하고 나온다. 나물 간이 짜다고 하면 간이 나물에 배야 하니까 바로 무쳤을 때는 조금 짠 듯한 게 맞다고 응수한다.

지장전이 바로 옆인데,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누군가 소리친다.

“반장, 떠드는 사람 칠판에 이름 적어.”

겉으론 이렇게 떠들썩하지만 재료를 다듬어 씻고 썰고 볶거나 무쳐서 봉투에 담기까지 자원 활동가들의 손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양파 까고 무 씻고 파 다듬으면서 세상사는 얘기도 하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스개 소리도 전해 듣고, 숨씨 좋은 분들에게서 맛내기 비결을 전수 받기도 한다.

“아들이 사춘인가 봐요. 며칠 전에는 표정이 안 좋기에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쳐다봤더니 퉁명스런 말투로 ‘왜 자꾸 보세요? 기분 나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아무 말 안고 가만있는 게 수야. ‘이 녀석아 엄마가 아들 쳐다보는 것도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거나, ‘걱정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봐’ 식으로, 선불리 다가가면 집안만 시끄럽다고, 제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다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하면서 보기만 해.”

자녀들을 먼저 키운 선배들의 조언에 젊은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일도 밀반찬 팀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반찬이 다 만들어지는 오후 2시~3시 경이면 배달을 맡아서 하는 배달 봉사자들이 속속 도착해서 성북구·종로구·중구·강서구 등에 걸쳐 있는 21군데 동사무소로 배달을 한다. 매주 두 가지씩 만들어 맑고 의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반찬은 동사무소를 통해 각 후원 가정에 전달된다.

매달 둘째 목요일, 김치 담그는 날에는 KTX 나눔회 회원 10여 분

이 오셔서 도와준다. 아무도 무서울 것 없는 ‘아줌마’들 50~60명 모인 밀반찬팀이지만 나눔회 거사님들이 아니면 한 집에 각 3kg씩 374가구, 단체 5곳에 총 150kg씩 전달하는 엄청난 양의 김치를 시간 내에 다 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얼마 전부터는 김치 하는 날이 아닌 데도 남성 두 분이 자원 활동가로 동참하여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등의 힘든 일을 묵묵히 해 주고 있다. 밀반찬팀도 드디어 ‘남녀공학’이 된 것이다.

맑고의 다른 팀들도 그렇겠지만

밀반찬팀에는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 참으로 많다.

지금은 각자 앞치마와 장갑을 가지고 다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자원 활동가들이 벗어 놓고 간 앞치마와 장갑을 매주 말없이 걷어다 깨끗이 빨고 삶아서 말려 오길 몇 년이나 한 윤영숙 회원, 혹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온 사람이 있을까 싶어 매주 빵을 한보따리씩 사 오시는 오지선 회원, 1년에서너 차례씩 맑고의 자재 보관 창고를 깨끗이 정리해 놓는 이정언 회원, 우렁각시처럼 나타나 수습 자루



식칼을 ‘주방장용’으로 갈아 놓는 변영애·조충래 회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반찬을 할 때면 미리 집에서 해 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최두리 모듬장, 해마다 조리장 빈티에 상추·고추·호박 모종을 심어 눈 밝은 회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기정·장재향 회원, 태풍 곤파스가 몰아친 날에도 어김없이 맑고 조리장에 출근 도장을 찍은 자원 활동가들… 그리고 또 결식이웃 후원 계좌에 매달 1~2만원씩 입금해 주는 수백 명의 개미 후원자들도 오늘의 ‘밀반찬팀’이 있기까지 든든한 힘을 주신 분들이다.

모두모두 성불하세요. 

결식이웃을 위한 자원활동가 모집

멀리 있는 행운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 오전 9시 반~
- 밀반찬 배달 자원활동 :
매주 금요일 오후

결식이웃 밀반찬팀

1999년 8월, 결식이웃·무의탁 노인·극빈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결식이웃들에게 밀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매주 금요일 밀반찬을 만들어 100가구의 결식가정에 배달했던 것이 대상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작년부터 금요일뿐 아니라 목요일에도 조리장에 모여 밀반찬을 만들고 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주의 메뉴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는 봉사자들에 의해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팀장이나 담당 간사는 미리 시장을 봐 오거나 배달 주문을 해 놓아야 한다. 반찬이 다 만들어지는 오후 2~3시경에는 배달 봉사자가 와 성북구·종로구·중구·강서구 등 21곳의 동사무소로 배달한다.

매달 둘째 목요일에는 가구당 3kg 내외의 김치를 전달하고 있으며, 짝수달에는 쌀 구입용 농협쿠폰을 지급한다. 또 매년 11월에는 가구당 20kg 안팎의 김장 김치를 전달하며 연 2회 명절 전후 물품을 후원하기도 한다.

현재 밀반찬팀 전체 등록된 봉사자는 50~60명이며, 반찬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2010년 9월 현재 총 374가구 단체 1곳이다. 밀반찬은 농산물 시세에 따라 지출비용의 변동이 많은 편이다.

밀반찬팀 자원 활동가는 상시 모집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길상사 경내가 새롭게 보였어요

희 월

길상사는 성북동의 긴 언덕길 중턱에 정갈하고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찾는 길상사지만 절에 들어설 때의 마음은 매번 새롭게 됩니다. 일주문을 채 들어서기도 전에 풀냄새가 콧속으로 스며듭니다. 길상사 경내로 들어가면 비질 자국이 선명한 흙마당, 푸른 나무그늘, 계곡이 있습니다. 또 어딘가에서 곤충들은 알을 낳고, 새들은 벌레를 잡으며, 나무들은 잎을 날리고, 꽃들은 제 차례를 기다려 꽃을 피웁니다.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내 안에 살아있는 내면의 자연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생명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상사에 들어설 때의 편안한 느낌은 길상사의 자연이 우리 안의 자연과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절들은 저마다 적절하고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길상사의 여러 중요한 역할들 가운데 하나는 도심 속의 생태숲으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회색빛의 도심 속에 새와 곤충이 깃들이고 번식할 수 있는 곳,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산소를 내뿜는 곳,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는 곳, 아마도 이 정도가 생태숲에 대한 느슨한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길상사 생태모임은 도심 속의 생태숲으로서의 길상사를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모임이 가야 할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암중모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확실한 활동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길상사의 자판기 두 대는 종이컵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이컵이 내려오는 자리에 종이컵 대신에 사기컵을 놓고 커피를 받게 되어있지

요, 생태모임 회원들은 돌아가면서 매일 자판기를 청소하며 컵도 정리하고 식기대도 닦습니다. 종이컵 대신 사기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를 흔히 보기 힘든 까닭에 아까운 커피를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양복차림의 노신사께서 손수 컵을 닦아서 컵 걸이에 꽂아놓는 뒷모습은 참 정겹습니다. 이 소박한 작은 몸짓 하나로 절 전체와 삶 전체가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길상사 생태모임은 한 달에 두 번 식생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략 두 시간 가량 숲 해설가 이신 김석우 선생님을 모시고 길상사 경내의 나무와 풀과 꽃을 공부하지요. 식생에는 까막눈인 제 눈에는 그저 잡초로 보였던 식물들이 알고 보니 이름은 얼마나 예쁘고 곡절 또한 얼마나 깊던지요. 특별할 것 없어보였던 풀들이 알고 보니 이름도 고운 ‘명아주’고 ‘으아리’고 ‘주름조개풀’이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 전에는 안 보이던 각자의 개성이 세세히 눈에 들어옵니다. 이름을 알게 된 뒤로는 이들을 지나칠 때마다 정이 가고 미안해집니

다. 길상사 경내를 걷다보면 발끝에 툭툭 차이는 상수리 열매들은 또 어떨까요. 땅에 떨어져 있는 상수리 열매들 안에는 애뜻한 모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거위벌레가 열매 속에 알을 낳고 열매가 싱싱하게 오래 가라고 잎사귀가 여러 장 붙어있는 채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랍니다. 이 사연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나무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겠거니 무심히 생각하기 쉽지요. 식생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무와 풀과 꽃과 통성명을 하고 사연들을 알고 나면 괜히 이들과 서로 아주 잘 아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내에서 눈인사할 친구들이 많아져서 길상사가 한결 친근하게 느껴지지요.

이렇게 길상사의 경내를 거닐며 물과 바람, 풀이며 나무며 꽃, 그 안에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을 떠올리는 순간이 바로 우리 안팎의 자연을 보살피는 첫걸음이지 싶습니다. 그러니 자연 속에 들어와 살며 내면에 자연을 보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이미 생태모임의 회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합창단의 ‘나누는 기쁨’

도 안

10여 년을 한결같이 처음 그 느낌처럼 부처님께서 음성공양을 올리며 ‘나누는 기쁨(길상사 찾집)’에서 차 봉사를 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부처님의 숨결을 느끼며 일주문을 들어섭니다.

종무소에서 열쇠를 받아들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나누는 기쁨’으로 향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지런히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서 청소합니다. ‘길상사’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대추차를 짜고 들통에 앉히면서 차를 찾는 분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진한 대추차 끓이는 향기에 반해 들어오셨다는 맑고 편안해보였던 어느 보살님들. “대추차 3잔 주세요”하고 2만 원을 건네십니다. 합창단이 자원봉사 하고 있다는 말씀에 “우리는 마음이라도 내야지...” 하시며 “거스름돈은 보시할게요”하

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릴게요. 하하하.” 곱고 맑아 보이는 얼굴만큼 마음씨도 곱고 예쁘십니다.

봉사를 하면서 ‘나누는 기쁨’처럼 기쁨을 나누다 보면 보람도 있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지난 봄, 불교입문반 공부가 끝나는 날 각 신행단체장들이 수강생들 앞에 나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합창단 소개를 듣고 새 단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보람 있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봄에 법정스님이 입적하신 후 더욱 유명해진 길상사. 더불어 함께 유명해진 ‘나누는 기쁨’의 대추차. 여기 저기 가스 불 켜 놓고 대추차를 끓이느라 비지땀을 유난히 많이 흘렸던 올 여름, 흘린 땀만큼이나 탐진치를 녹이면서 마음을 비우며 무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피꼬리 같은 우리 합창단 단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침 참선 수행기

아 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모시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스승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은 있던가? 아마도 없는 듯하다.

근무 중에 날아온 메시지 하나. ‘법정스님 입적하셨대.’

아~ 돌아가셨구나.

불자라면 한 권쯤은 가지고 있는 법정스님의 책, 집에 <텅빈 충만>이라는 책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사두었던 <무소유>.

스님 돌아가시고 다비식 하는 날. 마지막 가시는 길 멀리까지는 못가도 배웅은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길상사로 걸음을 옮겼다.

스님의 열반으로 그동안 타성에 젖어버린 신행생활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심으로 더 크게 깨우쳐주시는 것 같았다. 그래 뒤죽박죽된 현실을 어찌지도 못한 채 불평불만만 하는 이 생활에서 이제는 제대로 벗어나 보는 거야!

7시~9시 아침 좌선 수행. 중간인 8시에 10분 쉬고 늦게 온 사람 입실, 일찍 갈사람 퇴실.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마음공부가 이곳에서 열릴라나?

집이 좀 멀다는 핑계로 첫날은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설법전에는 이미 참선이 진행되고 있었다. 보통은 법당에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앉아 법문을 듣거나 절을 하는데 스님을 비롯한 모든 수행자가 출입문 쪽을 향해 그것도 눈을 반쯤은 뜨고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차마 들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온화한 기운이 법당에 감돌았다. 또 사람마다 각자의 수행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수행하는 모습 자체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좋은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는 말이 있다.

개인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호흡을 관찰해 나갔다. 그러나 마음먹은 만큼 2달 정도 해도 진전이 없어 옴마니반메흠을 염하는 수행으로 전환, 불교방송에서 한참 유행했던 중국 가수가 부른 음반까지 구입해 들으며 몰입하려고 애썼다. 부처님의 본심,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 했는데 어떤 위대한 존재에게 마음을 귀의하고 오로지 옴마니반메흠 육자진언을 외우니 쓸데없는 근심걱정이나 고집들이 줄어드는 것 같고 마음도 금세 밝아질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수행을 하던 간에 결과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만이 옳고 잘났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의 그릇되고 모자란 모습만 눈에 들어온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게을러 녹이 슬고 틈이 생길 때 서로 아껴주고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소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재의 모습은 내 안에 참된 성품을 등진 체 살아온 습성대로 행한 것들의 결과임을 받아들이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고 일

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보람될 때, 수행하는 의미가 있는 듯하다. 나를 넘어서 다른 존재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겠지?

언젠가 길상사 앞마당 관세음 보살님상에 꽃 공양을 올렸는데 이런 꽃말이 있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침·저녁 좌선수행

길상사에서 매일 진행하는 아침·저녁 좌선수행은 수행 경험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으며, 시간에 맞춰 입실하시면 됩니다.

- 시간: 아침 좌선 오전 7시~9시 / 주지 덕현스님
- 저녁 좌선 저녁 7시~9시 / 유나 지공스님
- 좌선수행 동참자를 위한 주지스님의 즉문즉답은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외로운 이들, 결식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나누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묘지원(5일, 매월 첫째 일요일)

(소감 : 김광수 모듬장)

서울에서 출발하는 20명이 승합차 2대로 나누어 타니 비좁긴 하지만 이번 곤파스 태풍으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곳 고추밭도 태풍이 여지없이 휩쓸고 지나갔다. 도착하자마자 재빠르게 경운기와 봉고에 장비를 챙겨 신고 밭에 도착해 보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해 동안 고추를 8번 정도 수확해야 하는데 올해는 3번 밖에 수확을 못하고 쓰러져 버렸으니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우선 고추 지지대 쇠기둥을 뽑아낸 다음 고추 뿌리 부근을 낮으로 짧게 절단하고 나서 빨간 고추부터 따기 시작했다. 다들 하나라도 더 따야 하는 마음가짐이라 분주하게 움직인다. 따고 남은 고추대는 부근 들판으로 둘러매고 안아들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이용하여 옮겨 넣어 건조시킨 후 추가로 수확할 예정이다. 무성하던 고추밭이 순식간에 밭고랑만 텅그러니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니 때 이른 겨울 풍경이 펼쳐져 더욱더 쓸쓸해 보인다. 농부들의

허망한 마음을 이해할 것만 같다. 하지만 바라만 볼 수 없는 일이다. 김장 배추를 심기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비닐을 걷어내고, 밭 고르기를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별안간 하늘이 킁킁해지면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를 뿌려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무심하고 알미운 소나비, 허나 누구를 원망하라. 하늘이 하는 일인데, 무척이나 안타깝고 개운하지 않았던 하루였다.

진인선원(12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 이금재 모듬장)

오늘 활동에는 12분이 참여했다. 오전 활동은 주방일손 돕기로 감자, 파, 풋고추 다듬기와 붉은고추와 멸치를 손질하였다. 오후에는 법당과 관음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춤과 노래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저녁에는 권혜진 님이 인사동 채식식당에서 결혼답례 저녁을 샀다. 다음 달 말일에는 송광사 성지 순례를 논의했다. 건조해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피부보호를 위하여 사무국에서 보습로션 세타필을 지원해 주었다. 진인선원 사무국에서 감사의 말씀을 주셨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 엄경숙 모듬장)

■ **이찬희** - 정릉동에 거주하는 정OO 어르신은 재활용폐지를 모아 생계비를 마련하고 계신다. 연세가 많고 고된 일을 하셔서인지 병원치료를 받고 계셨다. 김OO 어르신은 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최근 아들의 일이 잘못 되어 채무가 생겨 생활보조금에서 채무 변제되어, 어려운 형편에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하신다.

일을 하면서 아침, 저녁 틈틈이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말벗봉사가 올해로 3년째,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

■ **오은주** - 길음1동에서 길음2동으로 이사 간 김OO 어르신이 계속 반찬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대상자중 김OO 할머니께서는 지체장애가 있는데 장애인연합사무실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라고 하신다. 최OO 어르신은 지난달에는 김치가 맛이 없

었는데, 이번 달에는 김치가 맛이 좋았다고 하신다. 혹시나 추석 때 안부인사를 못 할까 싶어 미리 추석인사를 나누곤 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팀)

(담당 : 권미자 모듬장)

■ **8월 30일 권미자** - 요즘 들어 노인센터에 새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듯하다. 처음이라 잘 모르셔서 줄을 서시지 않고 급식대 앞으로 오셔서 식판을 받으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추가 배식대에 오셔서 손으로 김치를 집어 드시는 분도 계시서 급식 때마다 당황스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 어르신께서 커다란 비닐봉지에 밥을 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봉사자께서 보셨다. 밥을 담아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듣지 않으셔서 부득이 주방장님께 말씀드리게 됐고 그 어르신께서는 집에 가서 저녁에 라면 드실 때 같이 먹으려한다고 가져가겠다고 하시고 해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그 어르신은 센터의 규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밥 조금 가져가는데 뭘 그러냐는 듯 하셨고 옆에서 식사하시던 어르

신들은 거기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안해서 쳐다보시는 어르신모습에 괜히 죄송스런 마음이었습니다.

■ **19일 이권복** - 좀처럼 물러설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센터에 오신 어르신 분들과 봉사자님들의 모습이 오늘 따라 훨씬 활기차 보인다. 산들산들 부는 바람결과 함께 센터에 도착하니 박꽃처럼 환하게 맞아주시는 맑고 팀장님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팀장님을 바라보니 영희씨와 추가 배식을 담당하라 하신다.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한지 몇 달 지났지만 추가배식처럼 직접 어르신들을 마주해야 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가 않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한 손가락의 의미와 더와 덜을 구분 못해서 실수하는 내게 화를 내실 때는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오늘도 할 아버지 한 분이 한 손가락만 달라고 하셔서 정확히 한 손가락 드렸더니 별걱 화를 내신다. 내 판에는 열심히 하려고 정확하게 하려한 것이 오히려 어르신 마음을 불편하게 했나보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 하

지만 이런 작은 실수를 웃음으로 넘겨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족 같은 마음이 들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기도 한다. 오늘도 여러 차례 야단을 맞으며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지려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활짝 웃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칭찬 들었네요’하는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래 어차피 이곳에 왔으니 노란색 앞치마에 써있는 맑고 향기롭게의 글귀처럼 야단을 치셔도 환한 모습을 지키자. 향을 썬 종이에선 향내가 나고 생선을 썬 종이에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화난다며 퉁퉁거리며 악취를 풍기는 대신 마음에 빛을 담아 주변을 더욱 더 맑고 좋은 향내가 퍼지도록 자신을 낮춰야겠다.

■ **20일 권미자** - 명절 앞이라 봉사자가 많이 오시지 못했다. 대신 기업체에서 많이 오셔서 무리 없이 급식을 할 수 있었다. 추석을 맞아 노인센터에서 준비한 송편과 약과를 식사 후에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렸다. 푸짐한 선물은 아니었지만 약과를 받아든 어르신들의 밝은 얼굴에 저희들도 흐뭇한 마음이었다.

■ **27일 노현희** - 연일 후텁지근하던 폭염 속에 폭우, 폭풍까지 심술 맞았던 여름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조석으로 쌀쌀한 계절이 되었다. 지난여름 힘들고 바쁜 배식 시간에 나누어 마시던 그 시원한 보리차의 맛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반가운 친지, 가족들과 추석명절을 보내고 즐거움 속 피곤함도 뒤로 한 채 오늘도 우리 맑고 향기롭게 팀은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기업체 봉사자가 많이 온 덕분인지 오늘은 조금 수월한 식탁정리를 맡았다.

빈 식판을 치우고 하얀 행주로 식탁을 닦던 중 어떤 어르신께서 장애인 손자를 데리고 오셨다. 어르신께 손자는 식권이 없어 규정상 식사가 허용되지 않아 한사람만 식사를 제공해 드린다는 직원의 말을 들었다. 당신은 드시지도 않으면서 전혀 듣지 못하는 손자를 챙기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려왔다. 살짝 주방에서 빈 그릇을 가져와 어르신 식사를 챙겨드렸다.

연신 고맙다는 어르신 인사에 알 수 없는 민망함이 더 컸다. 언제부터인가

월요일 아침 그 시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만 같은 나만의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은 언제나 우리 맑고 팀을 미더워하시는 복지사님, 팀원 모두를 다정다감하게 챙기며 종종 좋은 글귀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는 팀장님, 능숙한 배식솜씨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팀원들 덕분인 것 같다. 나눔에 동참하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국화꽃 향기 그윽한 계절에 와 있음에 나름 뿌듯함을 느낀다. 환절기에 노인복지 센터를 찾는 어르신들도,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마음을 나누는 우리팀들도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 오늘의 나눔 시간이 또 행복해져갔다.

서울시립수탁양로원
(1, 2, 3, 5주 목요일)
(담당: 오은주 모듬장)

■ **9일 박주효** - 친정아버지 49재를 마치고 처음 수탁노인양로원에 가던 날, 긴장도 했지만 이제까지 남에게서 받고만 살아온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곳에 발을 디뎠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 둘 모여드시고 반주에 맞

취 노래가 시작할 때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그 분들을 볼 수 없었다. 내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로 비춰졌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 분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면 오히려 나 자신이 위로받고 행복을 느낀다. 그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내게 메아리로 돌아오나 보다. 이제는 그 분들을 한 주라도 안 뵈면 보고 싶고 궁금해진다. 제생애 진정으로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지만 아무 걱정 없이 어린애처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맑고 향기롭게 감사드리며, 우리 같이 다니시는 도반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수락노인 양로원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님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16일 오은주** - 유난히도 더웠고 유난히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태풍도 있었던 이 여름이 지나가나 보다. 수락산 자락에 부는 선선한 초가를 바람에 벌써 어르신들 웃웃이 달라졌다. 찾아볼 때면 늘 한결같이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미소에 기운이 절로 나게 된다. 음악치료 선생님이 오시면 어르신들의 표정은

더욱 밝아지신다. 무언가 신문에 콩콩 써서 선생님께 건네는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손잡아 드리면 그 표정은 더없이 순진한 학생 같다. 독창의 시간이 되면 안 하신다 못 하신다 고개를 저으시다가도 마이크를 대 드리면 숨어있던 실력을 보여주신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절 가사까지 틀리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도 어르신들과의 즐거운 노래시간을 마치고 내려오는 우리 활동가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 주를 약속하고 헤어진다.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 홍정근 봉사팀장)

■ **9월 5일** - 요가 활동과 더불어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아동들이 함께 자원봉사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 시작 전 몸 풀기 동작과 안마 등 다양한 요가를 진행하였는데 제법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첫째 주 요가를 진행하는 이숙인 봉사선생님은 요가 전문 강사인데 때로 엄청난 요가동작을 보여주곤 한다. 이번 주는 첫째, 셋째 주 봉사자

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에 요가를 하지 않는 청소년은 강당과 복도 청소를 하였다. 평소보다 일찍 요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함께 강당에 모여 그동안의 활동 모습들을 모아 제작한 동영상의 시작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의미 및 주의사항, 시설 장애아동들의 특성 및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동들과 관련된 교육이라 그런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도 집중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교육이 끝난 후 아동들과 맛있는 초밥을 먹으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일요일 아침마다 아동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맑고 향기롭게' 청소년 요가 봉사팀!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갈 것이다.

■ **9월 19일** - 두희가 좋은 일이 있는지 함께하는 동안 해맑게 웃으며 잘 따라왔다. 두희는 침을 잘 빨곤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낱알이 좋아지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동안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아동들이 훌쩍 커버린 느낌이 들어 몸무게나 팔 힘을 이용하는 장난을 치면 청소년들이 힘에

부치는 것 같다. 소정이는 혼자서도 굉장히 잘 따라하고 있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담당 : 최두리 모듬장)

■ **2, 3일** - 새벽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에 태풍 곤파스가 강타하고 제트기처럼 지나갔다. 그 흔적이 엄청났다. 전동차가 곳곳에서 운행이 중단되고, 여기저기서 가로수가 뽑히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온통 엉망이 되어 버렸다. 걱정이 되어 일찍 조리장으로 가보니 우리 조리장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 홍팀장님께서 애 많이 쓰셨다. 역시 남자의 힘이 필요했다. 정리하고 또 하루를 위해 준비했다. 일기관계로 이번 주는 조금 간단한 메뉴를 했다. 비바람을 뚫고 오신 많은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전한다.

■ **9일** -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가고 가을장마가 계속되면서 야채, 과일, 축산 모든 가격이 쟁쟁 뛰었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 가슴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없는 분들은 이래저래 속이 상하는 상황이다. 결식

이웃 밀반찬 조리장에서도 걱정이 많았다. 김치를 해야 하는데 배추가 물러서 녹아 내렸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배추가 부족하다. 사무실 담당자께서 가락시장 시찰을 했다. 한 단계를 줄이고 우리 손에 오니까 절약 되는 건 알지만 먼 거리라 조금 머뭇거렸지만 밤늦게 두 차례나 방문 후 배추를 가락시장에서 구입했다. 좋은 배추 구입했다고 봉사자 분들께서 한마디씩 하신다. 이럴 때면 참 뿌듯하다. 이 정성이 결식 이웃 대상자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너무 좋겠다. 오늘도 하염없이 비는 내린다. 김치가 끝날 때까지 쭉~욱, 주지스님의 깜짝 방문이 있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 **16, 17일** - 이번 주는 반찬 2가지와 다음 주 추석연휴로 선물꾸러미가 지원되었다. 조리고, 무치고 포장하고 선물꾸러미까지 완성된 후 목·금 밀반찬 자원 활동가 단체사진촬영이 있었다. 모두들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이런 마음으로 매주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섬기는 대상자 여러분! 또한 자원활동가 여러분 풍성하

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총 374가구, 단체 1곳)

- 1째주 - 새송이 버섯야채볶음, 조개젓무침
- 2째주 - 김치
- 3째주 - 우영·연근조림, 오복채무침, 선물꾸러미(참기름, 송편, 김, 스펀, 사탕, 초코파이)
- 4째주 - 추석 연휴
- 5째주 - 버섯강정, 무생채

- 결식 후원금 8/1~8/31
11,247,000원
- 결식이웃 추석후원물품
배외선, 김지향, 이수옥, 김용내, 홍지영, 대우증권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서울모임

법정스님 선묵전
10.7~17

인사동 서울실버갤러리 ‘고운님’

생전 스님은 지인들에게 어떤 글로, 그림으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무소유의 향기 은은히 번져 나오는 법정 스님 선묵전(禪墨展)이 오는 10월 7일(목)~17일(일), 인사동 서울실버갤러리 ‘고운님’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1차 광주에서 전시회를 연 바 있는 현장 스님(티벳박물관 관장, 본 법인 이사)께서 법정 스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분들을 위해 소장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시어 서울에서도 스님의 글과 그림으로써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주관 : 대원사 티벳박물관, 서울노인복지센터
- 주최 : 서울특별시
- 후원 : (사)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 일시 : 10월 7일(목)~10월 17일(일)
(※ 오픈 행사 : 10월 6일 오후 5시)

- 장소 : 인사동 서울실버갤러리 ‘고운님’
(Tel 6911-9552)

**신임 이사장 덕현스님,
광주 지역 순회법회 및
맑은 세상 한마당**

**10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9시,
맑고 향기롭게 광주본부**

맑고 향기롭게 2대 이사장 덕현스님의 광주 지역 순회법회가 오는 10월 22일(금) 맑고 향기롭게 광주본부에서 열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은 지난 9월 초 본 모임 이사이자 보성 대원사 회주이신 현장스님의 도움으로 대원사 광주포교당인 지장왕사 내 2층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순회법회는 새롭게 단장한 장소에서의 개원법회를 겸한 자리로 광주 지역 모임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부 행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광주모임 사무실 이전 및 법정스님 기념관 개원식, 4시부터 7시까지 지역 내 불우이웃 200여 명을 초청해 공연, 식사, 선물증정을 하는 맑은 세상 한마당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2부 행사는 오후 7시~9시까지 신임

이사장 덕현스님의 법회로 이루어집니다. 대전모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순회법회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1부 : 오후 3시 30분~7시

광주모임 사무실 이전 및 법정스님 기념관 개원식 / 지역 내 불우이웃 200여 명 초청행사(공연, 식사, 선물증정 등)

■ 2부 : 오후 7시~9시

이사장 덕현스님 순회법회

■ 문의 : 광주시 북구 중흥동 656-11 구 화산빌리지 2층 / (062)236-3129

덕현스님 대전 지역 순회 법회, 원만히 마쳐

지난 9월 17일(금)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 법당에서 대전모임 회원을 비롯한 150여 대중이 함께 한 가운데 이사장 덕현 스님은 “불교의 현대적 실천”이란 주제로 법문을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을 시봉하셨을 때 이야기와 더불어 말씀하신 ‘나’를 자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법문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열렸던 대전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재정 후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대전 모

임 현황 및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한마디로 압축·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롯해 법정 스님의 유지를 받들되 거기에서 조차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내일의 맑고 향기롭게를 설계해 달라는 제안까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특히 대전모임 창립을 주도했던 종실스님께서 대전 연화사 내 사무실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대전 지역순회 법회에는 윤청광, 강정옥, 조영환 이사가 함께하였고 김자경 사무국장과 홍정근 팀장이 이사장 스님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대전모임에서는 이평래 본부장님을 비롯해 종실스님, 조명숙, 현미순, 박은옥 님 등 18분의 대전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법회를 계기로 대전 모임이 활성화 되는 기쁨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숲기행

10월 16일, 영주 죽계계곡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10월에 만나게

될 곳은 영주 죽계계곡~초암사~비로사~삼가리 구간입니다. 이번에도 숲해설가 박희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숲기행은 단기적으로 다녀오는 여행이나 성지순례가 아닌 한 해 동안 장기적으로 생태문화적인 시각으로 우리 숲과 지역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생태기행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기획과 알찬 내용으로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 42명 모집(입금순) / 맑고 향기롭게 회원·길상사 신도 2만원(직계가족 동일) 비회원 2만 5천원 / 외환은행 301-22-00270-1 (사)맑고 향기롭게 / 접수시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용) 필요 / 취소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으며, 결식후원 처리됨
- 집결지 및 출발 시간 - 길상사 일주문 앞: 오전 6시 10분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5번 출구: 오전 6시 20분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출발 시간 엄수)
- 준비물: 도시락, 간식거리, 식수, 우산, 모자, 장갑, 등산화 착용 필수
- 담당: 02)741-4696~7(홍정근 팀장)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프로그램 변경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선택한 천연화장품만들기 프로그램이 9월부터 좀 더 기능면에서 보강된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재료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한방헤나 샴푸	한방헤나 샴푸	8,000	9,000
좀더 순해지고 부드러워짐 강화 / 250ml			
콜라겐 로션	세라마이드 로션	8,000	8,000
노화방지 / 100ml			
알부틴 세럼	상백피미백 에센스	10,000	7,000
미백 / 100ml			
한방비누	한방비누	11,000	11,000

* 회원 수강료 무료

알뜰나눔장터(중고인 연합 바자회)

10월 30일(토) 길상사, 덕수교회, 성북동 성당이 함께하는 하나 되어 나누는 ‘중고연합바자회’가 길상사 인근 성북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나에게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 재활용품들을 길상사 종무소로 보내주시면 뜻 깊은 일에 쓰

겠습니다. 이번 달 맑고 향기롭게 알
뜰 나눔장터는 종교인연합바자회와 함
께 합니다.

- 일시: 10월 30일(토)
- 장소: 성북초등학교
- 물품접수: 10월 23일(토)까지
길상사 중무소

의류 재활용 소품 만들기

안 입는 헌옷을 이용해 소품을 만
들어보지 않을까요? 서툴지만 한 땀
한 땀 채워가는 자연살림법 익히기 강
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
시, 저희 의류 재활용팀으로 오세요.
헌 옷이 새로운 물건으로 변신합니다.

바느질법(미싱)도 배우고 헌 옷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회
원이 됩시다. 의류 재활용은 회원들
이 함께 만들어 가는 소모임입니다.

- 맑고 향기롭게 환경지킴이
02)741-4696/7

10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수련회
/ 신참반: 10월 16~17일(셋째 주말) /

구참반: 10월 23~24일(넷째 주말)

- 맑고 향기롭게 회원만남의 날/ 10월 15일
(매달 셋째 금요일) / 오후 2시 /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10월 1일, 7일, 8일,
14일, 21일, 22일, 28일, 29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
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14일은 김치 담그는 날)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자원활동 / 매달 첫째 일요일(10
월 3일) / 오전 8시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
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0월 10일) 오전 8시 20
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활
동 / 1, 2, 3, 5주 목요일(10월 7일, 14
일, 21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역 1번 출
구 집결/일반 자원활동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10월 4일, 11일, 18일, 25일), 매월 첫째 수요일(10월 6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셋째 일요일(10월 3일, 17일) / 오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월례회의 / 10월 11일 (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 서울모임 사무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10월 6일, 13일, 20일, 27일) 오후 1시~3시(삼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듦)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10월 5일, 12일, 19일, 26일) 오후 2시 30분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10명 마감
- 숲기행 / 10월 16일(토) / 영주 죽계계곡, 초암사
- 알뜰나눔장터 / 10월 30일(토) / 성북초등학교(※ 이번 달은 종교인연합바자회와 함께 열림)

〈기타 활동〉

- 봉사팀 모듬장 회의 / 10월 26일(매달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 서울모임 사무실
- 소식지 발송 / 10월 5일(우편분류 10월 1일)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10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6 / 13 / 20 / 27일(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6 / 13 / 20 / 27일(매주 수요일)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7 / 14 / 21 / 28일(매주 목요일)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7 / 21일(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병동 목욕봉사
14 / 28일(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7 / 14 / 21 / 28일(매주 목요일)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1 / 8 / 15 / 22 / 29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1 / 8 / 15 / 22 / 29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1 / 8 / 15 / 22 / 29일(매주 금요일)

09:30~12:00

- 1일(금) 참선모임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2일(토) 물론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4일(월) 자원봉사자회의
(매달 첫 번째 월요일)
- 12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9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9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2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3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10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템플스테이 동참안내 - 대상 : 회원, 운

- 영위원, 가족 / 일시: 10월 23(토)~10월 24(일) 1박 2일 / 장소: 성주사 / 동
참금: 3만 5천원 / 문의: 사무국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주 수요일(10월 20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10월 19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10/2, 9, 16, 23, 30)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봄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10월 7일)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10월 8일, 22일) / 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10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10월 27일)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10월 12일(화) 19시 성주사

대구모임(053-753-8883)

10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자연문화유적 탐방 - 장소: 청성산 화엄벌 / 일시: 10월 10일 일요일 / 출발 장소: 오전 9시 만촌동 이마트 앞 / 준비물: 산행복장, 도시락, 간식, 개인용품 / 동참금: 1만 5천원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밀반찬지원 / 매주 수요일(6, 13, 20, 27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7시(예정)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 9일(토) 오후 2시~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



방문 자원 활동 / 19일(화)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황금복지관 /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매월 첫째 화요일(5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 9일 오후 3시

광주모임(062-236-3129)

10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월 2회(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하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80여 분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조리시간: 오전 10~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저서 및 추천도서 / 10월 25일(매월 지장재일) 오후 2시 지장왕사

여기는 길상사

<동절기 저녁예불 시간 변경>

일몰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저녁예불 시간도 앞당겨집니다. 종무소 업무시간도 5시 30분까지이니 참고바랍니다.

- 변경일: 10월 1일부터
- 변경시간: 저녁 7시 → 저녁 6시

<제3회 사랑나눔 종교연합 바자회>

성북동에 위치한 길상사와 성북동성당, 덕수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바자회가 10월 30일(토)에 성북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바자회에 내놓을 물품 기증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0월 30일(토)
- 장소: 성북초등학교
- 물품접수: 10월 23일까지
길상사 종무소

<일요 초청법회 - 대봉스님>

10월 넷째주 일요법회에서는 계룡산 무상사의 조실스님이신 대봉스님께 법문을 청해 듣습니다. 대봉스님은 송산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을

해오시다 1999년부터 계룡산 국제선원의 조실로 상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귀한 법문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10월 24일(일) 오전 11시
- 장소: 설법전

<중양절 천도재 봉행>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16일) 중양절을 맞이해 선망부모 및 조상님들의 영가천도재를 봉행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종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경전반 10월 개강>

총무 정산스님을 법사스님으로 모시고 10월 1일부터 기초경전반이 열립니다.

- 일시: 매주 금요일 낮 2시~4시
- 기간: 10월 1일부터 3개월
- 내용: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계
- 대상: 기본교육을 수료하신 분
- 문의: 교무실 02)3672-0036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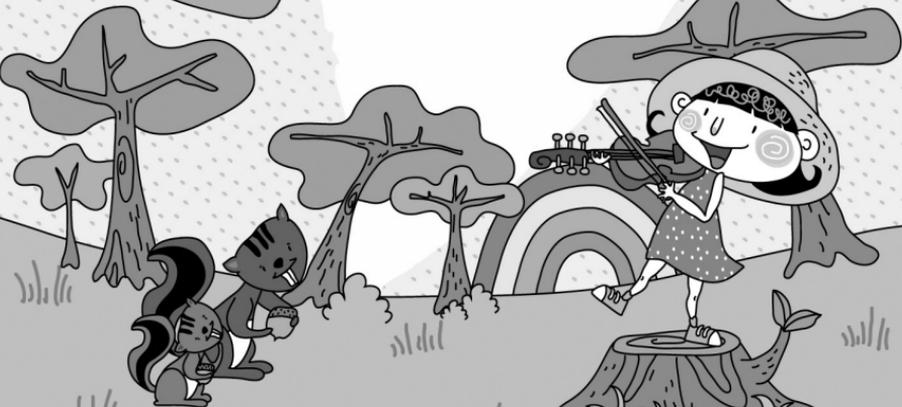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토요일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법전
- 삼천배기도 / 10월 9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거사람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10월 8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10월 18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10월 11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10월 26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10월 4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길상사」 찾아가는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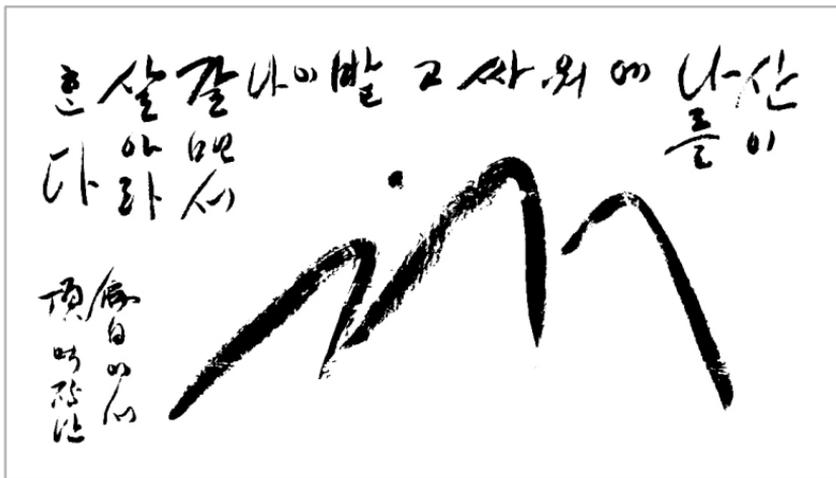
▣ 프로그램

Bach_ Brandenburg Concerto No.3 in G major, BWV 1048
바흐_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3번 사장조, 작품 1048
Maurer_ Sinfonia Concertante for 4 Violins, Op.55
마우어_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교향곡, 작품번호 55
Tchaikovsky_ Souvenir de Florence, Op.70
차이코프스키_ 플로렌스의 추억, 작품번호 70

- 음악감독 정명화
- 바이올린 이경선, 김현영, 노윤정, 이근화,
이세영, 이해경, 고은애, 이조해,
최원정(Mauer 바이올린 솔로),
나보미, 정윤영
- 비올라 최은식, 남강륜, 유혜리
- 첼 로 정명화, 박상민, 김성준



일시: 10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길상사 극락전 앞마당 출연: M4one 챔버앙상블
주최: (사)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후원: 성북구청



법정스님 선묵전

10.7~17 인사동 서울실버갤러리 '고운님'

생전 스님은 지인들에게 어떤 글로, 그림으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무소유의 향기 은은히 번져 나오는 법정 스님 선묵전(禪墨展)이
 오는 10월 7일(목)~17일(일), 인사동 서울실버갤러리 '고운님'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1차 광주에서 전시회를 연 바 있는
 현장 스님(티벳박물관 관장, 본 법인 이사)께서
 법정 스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분들을 위해 소장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시어
 서울에서도 스님의 글과 그림으로써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주 관 : 대원사 티벳박물관, 서울노인복지센터
- 주 최 : 서울특별시
- 후 원 : (사)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 일 시 : 10월 7일(목)~10월 17일(일) (※ 오픈 행사 : 10월 6일 오후 5시)
- 장 소 : 인사동 서울실버갤러리 '고운님' (Tel 02-6911-9552)